

광운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문동동

도서관 활동 기획안

정지용의 <홍시>

22.09.30.

문동동은?

문학으로 동화로 동심으로
우리 문학을 동화로 재해석하다

#광운대학교 #학생주도_프로젝트 #국어국문학과 #문학을_가까이

메인 테마, 정지용의 <홍시>



어적게도 홍시 하나.
오늘에도 홍시 하나.

까마귀야. 까마귀야.
우리 남게 웨 앉었나.

우리 읍바 오시걸랑.
맛뵈라구 남겨 뒀다.

후락 딱 딱
휘이 휘이!

메인 테마, 정지용의 <홍시>



- 일제강점기 활동 시인, 정지용
- 『정지용 시집』에 실린 동시
- 생동감 넘치는 표현

활동목표

쓸쓸한 가을이 아닌, 오감으로 느끼는 가을이 되길.

누군가를 기다리는 어린 아이의 마음.

까마귀를 내쫓는 살아있는 우리말 표현.

세부계획

- 활동주제: 시와 함께하는 가을
- 메인테마: 정지용의 <홍시>, 동화, 팝업북
- 활동 대상: 초등학교 저학년 아동
- 예상 소요시간: 1시간~ 1시간 반
- 인원: 약 15명

활동 공간 예시



- 나들목가족도서관 (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안암로 6, 신설동역 인근)

〈홍시〉 차근차근 읽어보기

어적게도 홍시 하나.
오늘에도 홍시 하나.

까마귀야. 까마귀야.
우리 남게 웨 았었나.

우리 옴바 오시걸랑.
맛빌라구 남겨 뒀다.

후락 딱 딱
휘이 휘이!

활동지에 들어갈 내용

까마귀가 홍시를 쪼는 모습,
여자 아이가 까마귀를 내쫓는 모습을
표현한 의태어
“후락 딱 딱 // 휘이 휘이!”

옛 한글의 모습 (대상이 아동인 점 고려)

홍시가 익어가는 가을의 정취

누군가를 기다리는 아이의 마음
오빠가 왜 오지 않을까? 상상해보기

〈홍시〉 동화 속 한 장면을 팝업북으로 “후락 딱 딱, 휘이 휘이!”



예시 사진

- 준비물: 두꺼운 도화지, 색칠도구, 실, 뽕뽕이
- 옥희가 까마귀를 내쫓는 장면
- 감나무: 입체적으로 표현
- 홍시: 감나무에 실로 매달아 표현 (구현 어려울 시, 주황색 뽕뽕이)
- 까마귀: 움직임 있게 표현

활동 마무리, 홍시 모빌



- 느낀점을 홍시에 새겨봐요
- 모빌 모양으로 만들어 전시
- 입체감을 살리지 않고 2D로 만들 예정



감사합니다.